스위스 부띠끄 타운.

스토리를 가진 스위스의 매력적인 도시와 마을들

로컬들이 자라난 도시와 마을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 만나다
터너의 눈으로 본 루체른의 호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클럽 회장을 길러낸 생갈렌
백 년 동안 단 네 번밖에 열리지 않는 축제의 주인공

«스위스 어반 필링(Swiss urban feeling). 부띠끄 타운(Boutique Towns)»은 스위스정부관광청이 소개하는 새로운 도시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진부한 관광지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짧게라도 "스위스의 일부"가 되어 여행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행자들은 로컬의 눈으로 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의 질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밀도 높은 체험 거리가 '스위스 부띠끄 타운' 캠페인의 주요 아이템이다. 이 캠페인은 단체 관광 스팟과 대조되는 시크릿 스팟에 촛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이를 통해 SNS 문화로 보다 특별한 체험과 포토 스팟을 찾는 여행자들의 디테일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지 휴가(City breaks)는 일상에서의 짧은 탈출을 의미한다. 스위스 부띠끄 타운은 도심지 휴가에 완벽한 장소다. 스위스의 도시와 마을은 매우 컴팩트한 공간에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밀집되어 있다. 여행자들의 로컬의 눈으로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잊지 못할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1. 터너(Turner)의 눈으로 본 루체른(Luzern)

영국의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는 스위스에 매료되었다. 영국 낭만주의의 대가는 소재를 찾기 위해 1802 년부터 1844 년 사이에 여섯 번이나 스위스를 여행한다. 여행 때마다 매번 루체른에 머물렀다. 루체른 아트 소사이어티(Lucerne Art Society)의 2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걸작들이 루체른 미술관(Museum of Art Lucerne / Kunstmuseum Luzern)에 전시된다. 바로, 그의 창작에 불을 지펴준 곳에서 말이다.

루체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디자인한 문화 컨벤션 센터인 카카엘(KKL)이다. 이 곳에 루체른 미술관이 자리해 있다.

새벽 6 시 루체른.
첫 유람선이 벡기스(Weggis)를 향해 선착장을 출발한다. 선상에는 승객들이 그리 많지 않다.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 길에 나선 로컬들 몇이 타고 있을 뿐이다. 루체른 미술관장 판니 펫처(Fanni Fetzer)는 이 유람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승객이다. 하지만 오늘은 예외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말이다.

터너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그다. 판나 펫처는 대단한 터너 전시를 큐레이팅 중이다. 2019 년 여름, 루체른 미술관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을 테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인 터너는 루체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가 스위스를 여섯 번이나 여행하는 동안 루체른은 그가 항상 머물던 장소 중 하나였다. 특히 배에서 바라보는 새벽녘에 매료되었을 그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거고, 지금도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마찬가지다. 특히 리기의 일출에 마음을 빼앗겼을 테다. 1842 년 작품, “푸른 리기. 일출(The Blue Rigi, Sunrise)”라는 작품을 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터너는 캔버스에 리기를 수 차례나 옮겨 담았다.
“이 전시를 기획할 때부터 터너의 눈으로 루체른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루체른 미술관장 판니 펫처가 말한다.

터너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찾아 다녔다. 이 여정은 스위스에서도 계속되었는데, 빛과 날씨, 호수와 산의 독특한 상호작용을 스위스에서 연구했다. 그는 자연의 위협적이면서도 위험한 측면에도 똑같이 매료되었다.

“터너는 스위스 여행 때 루체른 지역을 꼭 찾았죠.” 판니 펫처가 말한다.

터너는 200 년 전, ‘여행지로의 스위스’를 발견한 영국 전 세대를 상징한다. 그를 사로잡은 풍경과 인상을 스케치와 생생한 수채화로 남겼다. 대륙으로 향하며 건넜던 바다와 그가 만난 알프스에 대한 관찰력과 묘사력은 터너의 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 받는 대목이다. 이들 작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험이 웅장함의 테마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라 할 수 있다.

2019 년 여름, 루체른 미술관은 터너의 걸작 셀렉션을 선보인다. 판니 펫처 관장과 베아트 위즈머(Beat Wismer)의 큐레이팅으로 기획되는 이 전시는 특별한 터너 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2019 년은 루체른 아트 소사이어티가 맞이하는 200 주년이고, 루체른 미술관이 스폰서가 되었다.

“이 전에는 스위스에서 이만큼 완벽한 터너의 컬렉션이 한 장소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죠.” 판니 펫처가 들뜬 표정으로 말한다.

터너의 걸작들이 200 여년전에 기원했던 장소로 돌아오고 있다. “터너, 바다와 알프스(Turner. The Sea and the Alps)”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는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컬렉션 100 점을 선보인다. 특히 루체른과 루체른 호수 지역의 주제에 촛점을 맞추게 된다. 여기에 터너가 즐겼던 여행에 대한 주제도 다뤄진다. 특히 그가 건넜던 바다와 알프스 세계에 대한 해석도 만나볼 수 있다.

루체른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터너 전시는 2019 년 7 월 6 일부터 10 월 13 일까지 이어진다.
www.kunstmuseumluzern.ch

2. 전통있는 풋볼 타운, 생갈렌(St. Gallen)
FC 생갈렌의 회장, 마티아스 휘피(Matthias Hüppi)는 그가 태어난 이 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자리해 있는 생갈렌은 지식과 문화의 요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축구의 요람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클럽의 회장인 마티아스 휘피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적격자다. 그가 이 도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간극을 이어준다.

컴팩트한 동부 스위스에는 매력적인 도보 중심의 역사 깊은 도시가 있다. 생갈렌의 수도원과 대성당, 이곳의 도서관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티아스 휘피는 스위스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생갈렌 토박이인 그는 TV 진행자이자 스포츠 에디터로 유명해졌다. 거의 40 년 동안이나 SRF 스위스 텔레비전에서 근무하였으며, 수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풋볼 월드컵을 포함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했다.

요즘 그는 축구 클럽이 훈련장이 있는 그륀덴모오스(Gründenmoos)에서 조깅을 즐긴다.

“대단한 축구와 흥미 진진한 매치를 보여 주어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이것이 우리 동부 스위스인들의 전형적인 소망입니다.”라고 마티아스는 말한다.

스위스 동부를 통틀어 유일한 풋볼 클럽, FC 생갈렌은 2019 년 초부터 마티아스 휘피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화려한 역사를 가진 클럽이다. 1879 년에 창단되었는데,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풋볼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부 스위스에서 가장 위력있는 풋볼 클럽이자, 생갈렌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클럽이다. 휘피는 겸손함을 갖춘 자신감과 자부심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클럽과 이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인물상이다.

풋볼 클럽에서 무대까지?
첫 눈에 축구와 극장에서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갈렌에서는 조금 다르다. 생갈렌 극장은 풋볼 클럽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1801 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 극장이고, 여전히 공연이 열린다. 동부 스위스 및 보덴제(Bodensee) 호수 지역에서 유일한 종합 공연장(multi-branch theatres)이자, 마티아스 휘피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장소다.

부모님이 종종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 극장을 찾았던 덕분에 마티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 드라마, 발레, 오페라, 뮤지컬을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종합 공연장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극장에 대한 사랑은 해가 거듭할 수록 커져만 갔다. “극장은 너무 매력적이었죠. 생갈렌 극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극장 장르의 전 스펙트럼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생갈렌 극장은 1968 년, 스위스 건축가 클로드 파이야(Claude Paillard)가 디자인했다.

“극장의 세계는 참 매력적이에요. 무대의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준비될 때까지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마치 축구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다.

“지식의 요람”이라 불리는 생갈렌의 수도원 도서관은 1983 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중요도에 있어 축구와 극장과 비교할만한 곳이 있다. 바로, ‘생갈렌의 홀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크 양식의 성당이 딸린 생갈 수도원(The Abbey of St. Gall)이다. 이 곳의 도서관과 자료와 함께 1983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모든 생갈렌 토박이들이 그렇듯, 마티아스 휘피 역시 생갈렌의 홀마크에 얽힌 추억이 가득하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바로크 홀에는 슬리퍼가 마련되어 있다.
수도관 도서관에는 17 만권의 고서 컬렉션이 고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 5 만권은 인상적인 바로크 홀에 전시되어 있다. 바로크 홀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이 바로크 홀은 마티아스 휘피를 포함한 모든 생갈렌 토박이들에게 무척이나 친근한 장소다. 어린 유년기에 수도원 도서관을 찾으면 펠트로 만들어진 전설적인 슬리퍼를 신어야만 했던 기억은 생갈렌 토박이들이 갖고 있는 수도원 도서관의 추억과 함께한다. 풋볼 스태디움에서와 마찬가지라고 마티아스는 말한다. "슬리퍼를 신을 때 수도원 도서관에서는 모두가 똑같아 지죠. 모두가 슬리퍼를 신고, 너무 조용해 핀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온하고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3. 100 년에 단 네 번, 브베이(Vevey)
브베이에서는 모든 축제의 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축제가 열린다. 바로 와인 생산자 축제, 페뜨 데 비뉴롱(Fête des Vignerons)이다. 20-25 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축제라 무척이나 귀한 축제이기도 하다. 그 귀한 축제가 올해, 2019 년에 열린다.

1797 년에 처음 열린 축제로, 브베이 지역에서 와인 생산자들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매 20 년에서 25 년에 한 번씩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페뜨 데 비뉴롱은 스위스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축제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을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019 년 7 월 18 일부터 8 월 11 일까지 축제가 계속 되는데, 브베이의 그랑 플라스(Grand Place) 광장에 특별히 마련된 거대한 아레나에서 열리는 각 공연마다 2 만명의 군중이 모여든다. 한 달동안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 스위스 곳곳과 세계 곳곳에서 이 진귀한 축제를 찾아 모여 든다.

작은 마을 브베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보(Lavaux) 포도밭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포도나무가 레만(Léman) 호반에 바로 접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호수 너머로는 새하얀 알프스 만년설 봉우리가 기막힌 절경을 만들어 낸다.

와인 생산자와 그의 축제를 직접 만나보자.
블래즈 뒤부(Blaise Duboux)는 지상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인 페뜨 데 비뉴롱을 조직하는 사람 중 하나다.

브베이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풍경 속에 자리해 있다. 라보의 포도원과 가파른 언덕은 총 805 헥타아르에 이른다. 2007 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는데, 모든 종류의 와인이 이 지역에서 난다.

라보.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는 블레즈 뒤부는 라보를 집이라 부르는 행운아다. 그와 그의 포도밭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다. 그의 생계는 라보의 흙에서 자라난다. 그는 와인을 "병 안에 든 시간"이라 부른다. 병 하나 하나마다 일년치에 해당하는 그의 노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블레즈 뒤부는 주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한다. "한 해 한 해가 바로 성장 환경을 증언해 주죠. 한 해가 하나의 빈티지이니까요. 모두 와인 안에 고스란히 담깁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페뜨 데 비뉴롱을 준비하는 데만도 20 년이 걸린다. 이 와인 축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 축제는 우리의 뿌리와 와인에 오마주를 바치는 데 모든 것이 걸려있죠." 이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간극을 이어준다. 1797 년부터 콩프레리 데 비뉴롱(Confrérie des Vignerons)이 축제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블레즈 뒤부가 형제애를 맺고 있는 이들이다. 1999 년에 있었던 이전 축제에서 그는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에게 거대한 쇼를 선보이는 데 일역을 한 바 있다.

축제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반추한다. 지난 1999 년은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고 그는 회상하며 재미있는 예를 이야기해 준다. 조직 위원회 중 단 세 명만이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멤버들이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발명도 되기 전이었다. 티켓이 판매되는 방법 역시 단 20 년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사람들은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입한다. 1999 년에는 줄을 서서 매표원에게 티켓을 구입해야 했다.

2019 년 브베이에 설치될 공연장은 새둥지를 닮았다.
축제가 처음 열린 1797 년에는 2 천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1889 년에는 비교적 크게 성장한 축제에만 2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되었고, 다섯 회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1,379 명의 엑스트라가 이 공연에 참가했다. 1999 년에는 무대가 호수를 바라보게 설계되었다. 공연장에는 만 6 천명이 자리할 수 있었다. 쇼에는 5,050 명의 연기자들과 670 명의 기마인이 동원되었다. 2019 년에는 축제를 더욱 크게 기획해 2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된다. 새 둥지를 닮은 이 공연장에서 미학적인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동원한 쇼를 선보이게 된다.

사회를 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축제이기도 하다. 사회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1999 년에는 낙관적인 정신이 근저에 자리해 있어 사람들과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때였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거대한 오픈 스테이지가 호수를 마주해 설치되었고, 관객들을 위한 자리는 평지에 마련되었다. 2019 년은 완전히 다른 모양의 새둥지를 닮은 공연장이 설치된다. 현재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열 여덟의 세대와 불확실한 미래를 동시에 안고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블레즈 뒤부와 그의 포도밭에 서린 미래는 별들만이 알고 있다. 에페쓰(Epesses)에 위치한 그의 포도밭에도 지난 몇 년간 변화가 있었다. 포도 나무 사이를 거닐며 그의 아버지와 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와인에도 변화를 주었다. 전쟁 이후 와인의 품질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그의 아버지와 달리 블레즈 뒤부는 품질은 물론 유기농 와인만을 생산하는데 더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와인 생산량이 50%나 감소했지만, 능가하기 어려운 와인 맛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와인은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죠. 자연과 가까이 있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생산자에게 진솔한 보상을 주기 때문이에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일 년에 3 만 병의 와인을 생산한다. 20%는 레드 와인이고, 80%는 화이트 와인이다.

모든 것은 조화에 있다. 이 포도밭은 500 년 동안 그가 속한 가문이 소유해 왔다. 블레즈 뒤부는 17 번째 세대고, 그의 세 딸들이 18 번째 세대가 된다. 생물역동학의 원칙에 따라 포도나무를 돌보다 보니 점점 더 자연과 가까워졌다는 그다. 자연은 박자를 주고, 포도밭은 리듬을 선사한다. 이 와인 생산자의 일도 미래에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의 딸들에게 일을 넘겨주는 날이 올 것이고,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있을지, 지금으로써는 그들도 블레즈 뒤부도 알지 못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우리의 피와 포도나무의 피가 하나이고 서로 똑같은 것만 같죠. 와인은 우리의 핏줄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 DNA 에 들어 있는 셈이죠.”라고 그는 가문의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자료 협조: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